

진도 특산품 매장 ‘진도 명품관’ 새단장

구기자·울금 등 58개 업체 432개 품목 한자리에
판로 확대·저렴하게 구입·브랜드 홍보 ‘일석삼조’

진도군이 청정 농수특산물 판매장인 ‘진도 명품관’ 판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10일 재개관 했다.

진도 명품관에는 보배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한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고 운영하는 오프라인 판매장이다. 구기자, 울금, 전복, 김, 미역, 감정쌀 등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진도지역 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청년 농어부와 귀농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 등 58개 업체 432개 품목이 진열되어 있다.

농·어업인은 판로 확대를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도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생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



물을 홍보하고 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명품관은 진도를 남동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읍 원도심, ‘청년의 거리’ 조성

청년센터 7월 개관...수성천 인근 청년플랫폼 속속 들어서

해남읍 원도심이 활기 넘치는 청년의 거리로 조성된다. 해남읍 해남전을 따라 형성된 원도심은 매일시장을 경유하는 해남읍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시외지역 개발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공동화가 가속화 되어 왔다.

군은 천변 일대에 청년 관련 기반시설들을 잇따라 조성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 해리 천변 인근에 청년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청년센터는 연면적 349㎡, 지상 2층으로, 1층은 카페 등 열린 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센터는 청년 일자리 정보제공과 상담, 청년 창업 지원 및 문화 활동 등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맞춤형 강좌 운영은 물론 청년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군은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으로

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프리마켓, 버스킹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축제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앞서 3월말에는 청년센터 인근에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이 완료된다. 먹거리 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유주방·공유오피스 공간을 제공해 차별화된 젊은 감각의 먹거리 콘텐츠 기획과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장소는 천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련했으며, 같은 건물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청년취·창업을 지원하는 협업업무도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청년센터를 비롯한 청년 플랫폼이 들어서면서, 해남읍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

장흥군은 올해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을 위한 네 번째 주제로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인 접수되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흥군은 올해 민원 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 24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처리 과정 안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원활한 운영과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구축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로 실질적 행정 서비스 제공

처리 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지정 제도가 가능하다.

또한 후견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 및 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로 먼저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 위해 총력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봉진문 부군수 주재로 지표관리 부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년도 부진 지표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신규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에서는 도내 상위권 진입을 위해 ▲전년도 정량지표 문제점, 개선 사항 반영한 추진 계획, ▲정성지표 우수 사례 조기 발굴, ▲협업 지표의 공동 대응 등 추진 전략을 수립

하고 평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평가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지표 대책 보고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실적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봉진문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표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부서장들도 지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 등 행정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완도=이민혁 기자

강진군, 프리미엄급 새청무쌀 생산한다

강진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품질 새청무쌀 생산단지 대표자들과 프리미엄급 새청무쌀 생산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강진군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급 새청무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협통합RPC와 연계하여 최고품질의 브랜드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단지 대표자들에게 공동농작업 실천, 질소질 비료

감축(10a당 9kg → 7kg), 병해충 방제 및 적기 수확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강진군은 최근 새청무벼의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 보다 차별화된 품질로 쌀 시장을 선점하고자 강진군은 작년부터 국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새청무를 최고품질의 쌀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